

# 정보화사회와 지역발전



李 天 雨  
<창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I. 머릿말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은 정보화사회를 경제활동의 중심이 재화의 생산에서부터 서비스나 정보지식의 생산으로 이행하는 사회라 하고 탈공업화사회 또는 후기산업사회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정보화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의 중심이 종래 산업사회에서의 재화생산, 제조업, 내구 및 비내구소비재, 대규모 건설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무역, 전송, 재무, 보험, 보건, 교육, 연구, 레저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활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는 산업사회에서 발생한 인구의 대도시 집

중, 에너지 고갈, 획일적인 대량 생산, 비인간화, 자연파괴, 부의 편재, 지역간 격차 등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흐름인 민주화, 정보화, 국제화 그리고 지방화는 정보화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는 이러한 흐름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순응하는 개인, 조직 나아가 국가는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정보화사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경제사회의 변화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은 정보를 신속하게 먼거리에 전달할 수 있는 통신기술과 방대한 량의 복잡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기술의 결합에 의해 발달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실제화는 과거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 지면서 인간생활의 여러 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경제생활의 측면에서는

종래의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다는 의미의 정보갭(information gap)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상당한 정도 극복됨으로써 효과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제활동의 효율성이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여하이 적절하게 상응하느냐에 따라 판별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이론은 경제적 효율을 가져오는 시장의 한 형태로서 완전경쟁시장을 예시하고 있다. 여기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은 진입의 자유, 독과점의 부재, 규모경제 및 외부효과의 부재 등과 완전한 정보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의 경제사회에서는 완전한 정보를 전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이 가져올 수 있는 효율성은 얻어지지 않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같은 상황에서 정보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정보를 크게 완화시켜 경제사회에서의 정보갭을 상당한 정도 극복케 함으로써 경제행위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정보통신기술은 생산과정을 보다 자동화하여 거기에 내재해 있던 불필요한 요소를 거의 없애 주었다. 또한 다양한 수요에 대

응하도록 생산체제를 확립케 하여 다품종소량생산체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소비측면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 고도화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수요패턴에 생산·분배활동이 대응하도록 유인하였다.

경제활동의 여러 측면중 분배 과정에 개재된 유통활동과 기타 관련 서비스부문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의 경제활동에서는 창고기능과 관련하여 생산과 소비 간에는 어느 정도의 재고는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생산 및 소비활동에서 보다 완벽한 정보를 파악케 하여 생산과 소비 간의 장소적, 시간적 격차를 상당히 해소함으로써 창고기능의 필요를 크게 줄일 수 있게 하였다.

유통부문에서도 이른바 무재고의 분배까지 지향하게 하였으며, 운송과 관련하여 보관되지 않고 즉각 소비될 수 있는 것들만이 수송될 수 있게 하여 경제활동 전체에 운송서비스자원의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하였다.

금융이란 흑자주체(저축자)의 여유자금에 그것이 필요한 적자주체(투자자)에로 흐르게 하는 중개행위이다. 이러한 금융중개행위가 저축자의 사정과 투자자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 이들 각각의 필요를 함께 충족시키면서 저축과 투자를 중개시킨다면 아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가 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금융부문에서도 종래보다 훨씬 효율적인 금융중개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라 각종 금융상품이 새로이 창안됨으로써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이 본격화하게 되었다.

### Ⅲ. 정보화와 지역발전

#### 1. 정보화와 지역산업의 활성화 문제

경제의 소프트화, 서비스화라는 산업구조의 변화는 국제적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급속한 소프트화, 정보화는 고용의 장이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에서도 감소하고 3차산업으로 쉬프트하는 것을 의미한다.

3차산업은 일부를 제외하면 주로 소비자가 집중하는 대도시에 몰려있다. 더욱이 연구개발, 조사, 정보컨설팅, 디자인, 광고, 선전 등 성장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도 전기, 정밀기계, 일렉트로닉스 등의 첨단산업의 입지는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그리고 서남권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지방에서는 새로운 소외가 진행될 것이다.

한편 앞으로 진전될 경제의 글로벌화에 의해 산업구조의 고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경제사회에서의 정보갭을 상당한 정도로 극복케 함으로써 경제행위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화, 소프트웨어가 급속히 진행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지역내에서도 산업의 재편성이 이루어져 지역내의 격차도 심화될지 모른다.

특히 농업과 공공투자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지역은 심각한 곤란에 직면할 것이다. 또 지방경제를 기저에서 지탱하고 있는 농업부문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대비하여 국제화가 빠르게 추진될 것인바 이는 젊은층의 이동을 가속화하여 지역쇠퇴의 큰 원인이 될 것이다.

한편 통신의 발달확산은 장소구속성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도시의 지리적 경계자체를 없앨 수도 있다. 통신발달의 이러한 효과는 지식산업 내지 정보산업의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대중매체의 광역적 보급은 광역적 수요 내지 생활양식의 동질화를 초래하여 지방산업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통신발달에 따른 지역간 균형화의 기대는 궁극적으로는 산업구조의 정보산업화가 상당한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 정보사회의 지역구조

정보사회의 서비스업은 그 자체로서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서 주로 인간서비스(human services) 또는 전문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업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업의 생산방식은 주로 지식기술창조와 개발

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생산이기 때문에 정보의 처리, 교환, 전달이 곧 그 생산수단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통신수단의 발달은 그 생산체제 자체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에 따라 지역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제2차산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산업사회에서는 산업활동이 어떤 지역에 밀집해 있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집적의 외부효과가 도시구조형성에 큰 작용을 하였으나 정보사회에서는 이같은 지리적 근접에 의한 외부효과는 산업입지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인구와 산업의 지역적 밀집현상으로서 정의되기 보다는 지식산업과 그 시장권의 information network로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 3. 지역의 매력 제고

지역발전은 지역의 매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지역발전이란 공장유치를 위한 공업입지조건의 정비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었다. 지방의 넓은 토지, 노동력의 존재,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등이 공장유치의 요인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국제화가 추진되면서 경제의 구조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장의 국내분산이 확산되고 나아가 국제분산의 시대에 이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통신발달에 따른 지역간  
균형화는 산업구조의  
정보산업화가 상당한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공업생산기능 혹은 공업고용의 확대에 의한 지역개발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곧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 산업으로서 기대되고,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문은 생산현장기능이 아니라 업무관리, 금융, 연구개발, 지적·정보서비스 등의 고차의 경제적 기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의 발전은 토지, 노동력 자본 등의 생산요소 보다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아이디어를 산업화할 인간의 지적능력에 주로 의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연구개발과 기획 등 독창성을 필요로 하는 지적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그것을 담당하는 인재의 집적이 불가결하며 인재를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힘이 바로 지역의 매력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매력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인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90년대 이후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는 우리의 향토를 발전시켜 갈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청사진은 자기 향토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진 인재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의 확보와 양성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남게 된다.

요컨대 정보화사회에서 맞을 지방시대에 지역간 균형발전, 고급인력의 확보, 산학과의 연계, 그리고 전문적인 재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에 근거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발전에 그 초점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IV. 맺음말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대도시로의 집중이 산업화의 필연적 특성이기도 하였지만, 이것을 더욱 촉진시킨 것이 중앙집권제와 행정의 획일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방에 거점 도시를 개발하고 연구개발 등 고도기능의 분산을 의도하기는 하나 이같은 고도의 중추기능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복합적인 산업의 집적과 그것을 받치는 매력있는 도시로의 집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일정 광역권으로 어느 정도의 내부순환과 자립적인 경제권의 형성을 필요로 한다.

또 그러한 경제권은 자체적으로 국제적인 교류기능과 경쟁력을 지닐 수 있어야 하는 데, 현재 처럼 행정경제의 최종적인 관리 기능이 중앙에 의존된 채 현장생산기능만으로는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의 활성화에 불가결한 것은 지역 자주성과 독립성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자치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총합적인 힘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어떠한 지역도 자기 결정권을 갖지 못한 지역에서는 유능하고 야심에 찬 인재가 남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지역발전의 관건은 철저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의 활력을 이끌 인재의 양성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지역발전의 관건은 철저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의 활력을 이끌 인재양성에 있다.

